타협모색하는 石油輸出國과 輸入國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지난 12개월동안 심한 진통을 겪어온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이제 조심스럽게 소비국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만한 온건한 가격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주요 소비국들은 마냥 낮은 油價가 이익의 극대화에 결코 보탬이 안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石油소비국과 수출국간에는 石油市場의 安定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콘센서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OPEC는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6월말의 브리오니 총회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총회에서 13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해 가을에 지지하였던 강경정책을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략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적절한 전술에 대한 합의와 성실한 이행이 뒤따를 때에야 비로소 채택된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브리오니에서 전술에 대한 윤곽은 마련되었지만, 그후 수주일 후에 있은 제네바會議에서 고착상태에 빠졌다. 유례없이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의 회합인 지난 10월에 일보의 진전이 있었다.

다른 모든 카르텔이 그러하듯 OPEC의 근본 목표도 상품의 가격을 자유경쟁시장가격의 수준보다 높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급의 상당부분에 대한 통제가 요구되나, OPEC는 창설후 12년동안은 공급조절을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石油는 메이저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메이저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매우 낮은 가격으로 石油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OPEC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부의 지분을 증대시키기 위해 메이저에 압력을 가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하는 정도였다. 60년대를 지나면서 OPEC의 역할은 서서히 증대되었다.

1973년 中東전쟁 당시 아랍제국이 취한 石油禁輸조치는 OPEC의 카르텔로서의 첫 임무수행이었다. 산유국 정부는 그때까지 메이저가 갖고 있던 油價결정권을 접수하여 73—74년 기간동안 무려 4배의 가격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배럴당 2달러75센트의 아라비안 라이트가 10달러84센트로 뛰어 올랐다. 산유국의 石油利權 회수노력은 70년대를 통하여 계속되었으며, 마침내는 세계석유수출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후 5년간 油價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소비국들도 새로운 가격질서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균형은 79년 이란혁명에 의해 깨어졌다. 세계가 심각한 석유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OPEC는 이 기회를 포착, 原油가격을 3배 인상하였다. 이것은 독점가격 專橫의 대표적인 例이었다.

그러나 OPEC는 궁극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위치를 자초하는 꼴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카르텔의 전략은 카르텔이

공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때 競爭價格과 管理價格과의 차이가 커질수록 공급을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73-74년 油價상승 때에는 중기 均衡價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79-80년 상승시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폭등이었다. (아라비안라이트의 경우 배럴당 12달러70센트에서 34달러로 상승) 어떠한 경제적인 고려에 의해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이같은 인상은 소비국들을 분노케 하여 IEA(國際에너지機構)는 새로운 油田개발과 代替에너지에 대한 투자촉진을 통하여 OPEC 石油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OPEC의 高油價전략은 석유수요를 경색시키는 한편 공급증가를 촉진시키는 강한 動因이 되었다.

따라서 OPEC는 油價와 OPEC産 원유수요라는 두상관변수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이미 양쪽 모두 허물어지고 있었다. 81년도 OPEC의 총산유량은 22.5백만b/d이었으나, 감축의 필요성에 따라 쿼터시스템이 82년 3월에 도입되어 17.5백만b/d의 생산량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쿼터시스템은 83년에 총량은 변동없었으나 내부적으로 계수조정이 있었고, 이듬해인 84년에 16백만b/d로 생산할당량이 다시 감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油價방어전략에 의하여 自由世界에서 OPEC 原油의 시장점유율은 76년의 68%에서 84년에 43%, 그리고 85년에 40%로 감소추세를 지속하였다.

86년 OPEC의 산유량은 일부 회원국의 초과생산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크戰에 의한 생산시설 파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제노력에 의해 목표생산량인 16백만b/d를 크게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제반상황에 크게 불만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는 85년 가을 油價방어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시장점유율확보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은 과거에 메이저들이 극심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특정시장에서 가격할인을 통하여 시장고수를 선택한 비슷한 전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OPEC가 고수하고자 하는 시장점유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 제시가 없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은 20백만b/d까지가 OPEC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마니 사우디 前석유상이 언급한 바대로 OPEC의시장점유율방어정책은 非OPEC의 코스트가 높은 油田에 대한 가격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코스트가 높은 油田은 경제성이 악화되어 결국 폐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집요하게 할당량을 위반하는 몇몇 회원국들도 의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나, 어쨌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OPEC의 석유수출량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이 기본골격이다. OPEC의 이러한 새 전략은 석유소비국에게 뜻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주요 石油수출국들에게 새로운 정책은 큰 타격이었다. OPEC의 생산량은 지난 1/4분기에 17.5백만b/d(85년 전체 평균생산량 16백만b/d), 2/4분기에는18.7백만b/d에 달했으며, 이는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양이다. 따라서 생산량의 일부는 재고로 남게 되었고, 시장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가격체계가 혼미에 싸여있는 가운데 現物市場에서는 급전직하의 가격하락이 나타났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배럴당 26달러를 상회하던 브렌트油가 4월에는 10달러까지 폭락하였으며, 5월에 15달러로 약간 고개를 들었다가 7월말 10달러 이하로 주저앉고 말았다. 따라서 OPEC의 石油收入은 한때 80년에 2,790억달러로 최고에 달한 이후 85년에는 1,340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작년수준의 절반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문책인지 제네바會議 직후 사우디정부는 야마니 석유상을 해임하였다. 그러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産油國들도 값진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여하튼 OPEC의 시장점유율 방어전략은 6월말 브리오니총회에서 포기되고 새로운 전략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OPEC는 생산량을 3/4분기에 17.5백만b/d, 4/4분기에 17.9백만b/d로 제한하는 한편, 非OPEC産油國과의 관계협력노력을 배가함으로써 금년말까지 油價를 배럴당 17-19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세부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목표에 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대가 한풀 꺾이고 油價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

그러면서도 점차 시장의 실체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OPEC가 배럴당 10달러내외의 수준에서 18백만b/d를 생산한다면 연간 石油收入은 657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배럴당 15달러의 수준에서 16백만b/d를 생산한다면 연간 876억달러의 石油收入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량이 16백만b/d로 변동이 없다 해도 油價가 배

86년 한해를 평가하자면 주요 石油輸出國과 石油輸入國들은 石油문제에 있어서「눈에는 눈으로」식의 쌍방간에 보복을 교환한 해였다. 지난 1년여기간동안 심한 가격변동을 체험한 지금, 향후에는 개선된 石油價格으로 보다 안정된 石油市場이 될 것이 기대된다.

럴당 2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 연간 石油收入은 1,17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7－8월의 제네바會議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2월에 포기된 바 있는 16백만b/d의 생산상한을 9, 10월동안 부활시키자는 예기치 않았던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예외적으로 이라크의 생산쿼터량은 종전의 1.2백만b/d 대신 2백만b/d로 상향조정되어 총생산쿼터량은 16.8백만b/d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10월 이후에 새로운 쿼터시스템을 모색한다는 조건하에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란의 제안이 시행되자마자 9월에 이미 몇건의 쿼터초과생산이 나타났다. 그중 아랍에미리트는 새로 발견된 油田이 생산을 개시하였고, 베네수엘라는 비축원유를 추가로 판매하였으며, 쿠웨이트도 이에 질세라 재빨리 응수를 하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송유관 연결공사로 인한 수송중단으로, 그리고 이란은 석유생산시설의 피폭으로 인해 각각 쿼터량 이하의 원유생산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잠정적인 전략은 브렌트油의 가격을 배럴당 14달러 이상으로 회복시켰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고무받은 회원국대표들은 10월 6일 제네바에서 쿼터량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다시 가졌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산할당을 위한 기준도 없는 가운데 쿠웨이트를 비롯하여 각 회원국들은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을 계속하였다.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쿼터배정기준, 이를테면 생산실적, 확인매장량 규모, 현 생산능력, 인구, 재정소요 규모, 심지어 外債의 규모까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협상에서는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국가간의 경쟁의식도 협상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다.

마침내 11－12월동안 잠정적인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 의하여 총생산쿼터량은 16.8백만b/d에서 17백만b/d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表 참조). 생산량조절은 매년의 추세 뿐 아니라, 수요의 계절적 변동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회원국들은 보다 탄력성 있는 쿼터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별 생산량을 고정적으로 정하여 놓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율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시장수요를 측정하여 비율에 따라 국별 생산량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OPEC가 당장 목표로 하는 배럴당 17~19달러의 석유가격은 물론 경쟁가격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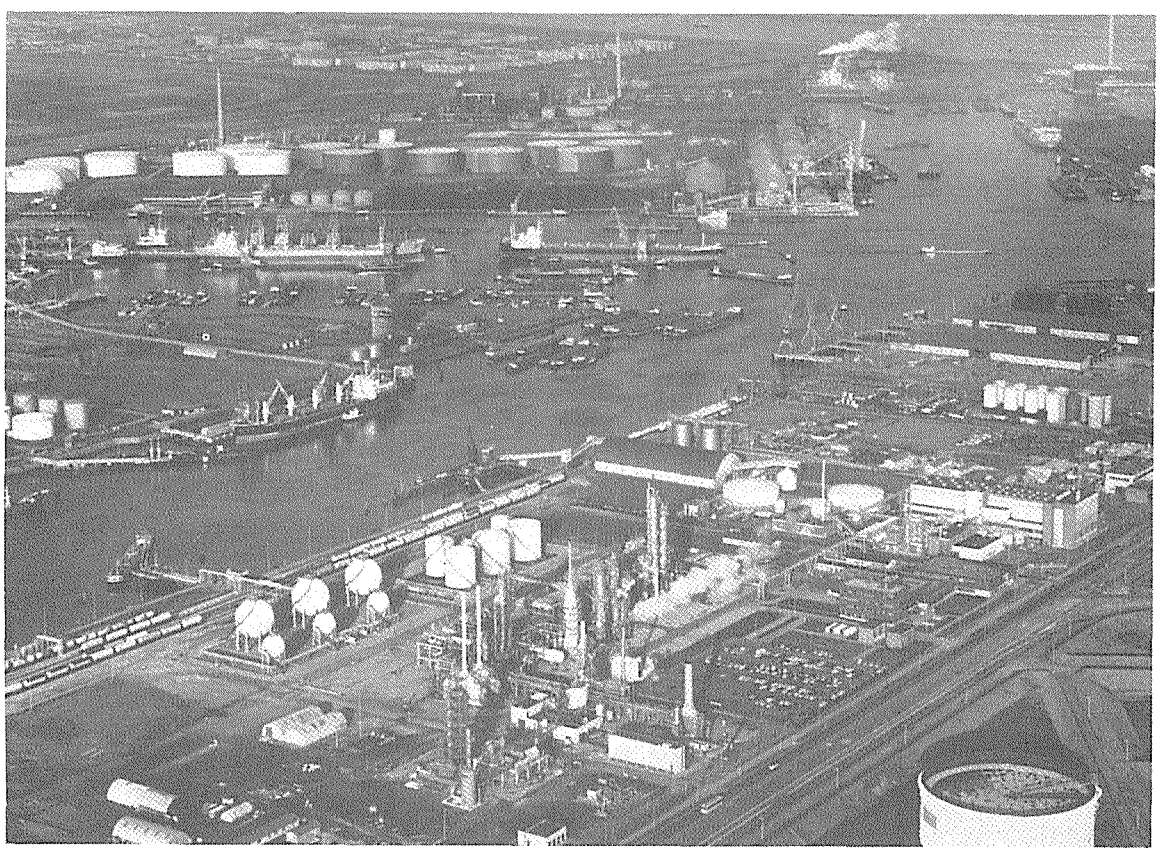
OPEC의 국별 産油쿼터량

(단위 : 천b/d)

	종 전 쿼터량	신 규 쿼터량	증가율
알 제 리	663	669	0.9
에 콰 도 르	183	221	20.8
가 봉	137	160	16.8
인 도 네 시 아	1,189	1,193	0.3
이 란	2,300	2,317	0.7
이 라 크	—	—	—
쿠 웨 이 트	900	999	11.0
리 비 아	990	999	0.9
나 이 지 리 아	1,300	1,304	0.3
카 타 르	280	300	7.1
사우디아라비아	4,353	4,353	—
아 랍 에 미 리 트	950	950	—
베 네 수 엘 라	1,555	1,574	1.2
計(이라크제외)	14,800	15,039	1.6

PEC의 최대생산능력은 26백만b/d를 상회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도 생산제한이 계속 요구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OPEC의 기준으로 볼 때 적당한 수준이며, 油價의 점진적 상승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原油價格 하락이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원유가격 변동이 즉각적으로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石油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몇가지 好材가 있다. 올해의 低油價로 인하여 장래 석유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보편적이다. 한편 현재의 가격수준은 코스트가 높은 非OPEC産油國의 油田에 계속 부담을 주기에 충분할만큼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英國의 北海油田 및 기타油田의 생산량이 피크에 달함으로서 油價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低油價에 기인하여 탐사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서 공급증가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OPEC原油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가격정책에 부응하여 조만간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石油輸入國들중 몇 나라는 올해의 경험을 통하여 유용한 경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美國에서는 텍사스등 석유생산州들이 심한 곤난을 겪었으며, 英國政府는 石油收入의 감소와 기업들의 투자저조로 파운드貨 가치의 하락을 체험하였다. 또한 만일 현재의 석유가격이 또다시 크게 하락한다면 장래 석유공급의 안정이 매우 위태로질 것이라는 생생한 인식도 갖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86년 한해를 평가하자면 주요 石油輸出國과 石油輸入國들은 石油문제에 있어서 「눈에는 눈으로」식의 쌍방간에 보복을 교환한 해였다.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심한 가격변동을 체험한 지금, 향후에는 개선된 石油價格으로 보다 안정된 石油市場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86 / 11〉